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녹) 연중 제3주일(하느님의 말씀 주일)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이승지 로사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2024년 1월 생활말씀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루카 10,27).”

(녹) 연중 제3주일(하느님의 말씀 주일 24. 1. 21)

오늘은 연중 제3주일이며 하느님의 말씀 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성자를 통하여 말씀과 은총을 가득히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둘러 회개하고 온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오직 한 분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멀리하는 이들에게, 온 삶으로 그분을 전하여야 하겠습니다.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요나 예언서 3,1-5.10):

주님의 말씀이 1 요나에게 내렸다.

2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3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4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5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10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 제2독서(사도바오로의 코린토1서 7,29-31):

29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30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31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복음(마르코복음 1,14-20):

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15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16 예수님께서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17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18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19 예수님께서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20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대오를 샅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나섰다.

미사 전례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자애로이 이끄시어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하소서.

화답송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소서.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 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리이신 주님, 하느님의 말씀 주일을 맞은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하느님 백성인 교회가 성경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2.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이신 주님, 이 땅의 정치인들을 굽어살피시어, 자신의 경험이나 신념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일에 마음을 모으고 약속들은 반드시 지키게 하소서.

3. 노숙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원자이신 주님, 추운 날씨에 한뼘잠을 자는 노숙인들을 살피 주시어,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말 못 할 사연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4.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자이신 주님, 니네베 성읍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쳐 재앙을 피하였듯이, 저희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삶과 피로 저희를 기르시니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으로

저희가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성가 ♪

입당 : 22 (천지 생기기 전)

봉헌 : 220 (생활한 제물)

성체 : 174 (사랑의 신비), 507 (사랑으로 오신 주여)

파견 : 68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공지 사항

♣ 구역 재편성 안내

- 1구역: 우윤정 마리아, 이민찬 비오, 서인복 리노, 안보영 켈마, 엄기용 안토니오, 김재의 미카엘, 김윤경 모니카 가정.
- 2구역: 정명용 미카엘, 허희숙 마리아, 이준서 다니엘,

김산영 율리아, 범장수 바오로, 이승준 다니엘, 윤상돈 알렉산델 가정.

- 3구역: 강한 프란체스코, 변의용 베네딕토, 안희관 요셉, 서기석 시몬, 윤미자 모니카, 유코 헬레나, 권혜림 세레나, 김종현 사도요한, 최임순 마리아, 노달현 알렉산드로, 김성진 다니엘, 남정희 마리아, 박지숙 레아, 박건욱(예비신자) 가정.

♣ 주님 봉헌 축일 초 축복 예식

- 초 축복 예식: 1/28(주일)
- 제대초: 15유로, 구역·단체별로 신청
- 개인용: 10유로(제대용 사이즈의 1/2)
- 신청 마감 및 입금 : 1/21(주일)

♣ 공동체 함께 성경 읽기

- 분량: 신·구약 통독
- 방식: 매일 5~10페이지씩 성경을 읽습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읽고 싶은 부분부터 읽어도 됩니다. 성경을 다 읽으면 차트에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개인 노트'를 마련하여 성경을 읽고 와닿는 구절을 적습니다(나만의 성경노트 작성하기).
- 기간: 2024년 성탄 대축일까지(성경노트 봉헌 및 선물 증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저희 본당 역시 행사 때 찍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친교사진방'에 공유할 수 있으나, 개인 SNS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임/회의

- 성모회 회의: 오늘(21일), 미사 후
- 청년성서모임: 오늘(21일) 미사 후, 사제관

♣ 봉사자

	이번 주일(21일)	다음 주일(28일)
제1독서	정상현 안토니오	정명용 미카엘
제2독서	우윤정 마리아	정지원 글라라
복사	박동현 요한보스코 이가은 마리아판체아	강윤이 스텔라 변가인 헬레나
계단·화장실	정상현 안토니오	정명용 미카엘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266.90 • 교무금 € 580.00